



25. 보금자리나마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학습목표 '-(이)나마'를 사용하여 아주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로 만족하는 상황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다.

학습내용 -(이)나마



생각해 봅시다

- 제일 가 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예요?
- 그 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어요?



본문

- (엄마와 유리의 대화)
- 엄마** 유리야! 도대체 뭐 하느라고 오후 내내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
- 유리**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 엄마** 어머니! 정말 환상적이다. 예전에 유명한 영화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여기 혹시 브라질 아니니?
- 유리** 네, 맞아요. 원시적인 밀림 속에 이렇게 넓고 깊은 물줄기가 세차게 떨어지는 것을 보니 정말 탄성이 절로 나와요.
- 엄마** 그러게. 너 이거 보느라고 꼼짝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 유리** 엄마,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정글과 밀림 속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좀 보세요.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죠?
- 엄마** 정말 그러네. 풍요로운 자연과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니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겠지.
- 유리** 우리도 아마존 밀림 덕분에 조금이나마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원주민들 모습 좀 보세요. 정말 비장한 표정이시죠?
- 엄마** 그렇구나. 아까와는 다른 모습이네.
- 유리** 자꾸만 사람들이 아마존에 들어와서 원시림을 벌목하고 환경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여기 저기 개발을 해대서 정작 원주민들은 살 곳을 잃어가고 있대요.
- 엄마** 그래서 저렇게 표정이 어두워졌구나. 원주민들이 그들의 보금자리나마 지키며 마음 놓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도입 질문

1. 해외 여행을 가 본 적이 있어요?
2. 어느 나라에 가 봤어요?
3. 어느 나라에 가 보고 싶어요?
4.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필요한 자료는 뭐가 있어요?
5. 필요한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어요?

본문 학습 순서

- 1) 도입 질문을 한다.
- 2) 본문을 듣기 전, 도입 그림을 보고 본문 내용을 유추해 본다.
- 3) 자막을 보지 않고 듣는다.
- 4) 이해 질문 1(포괄적인 내용 파악)을 한다.
- 유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답: 방)
- 유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답: 사진을 보고 있다.)
- 아마존 밀림 속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답: 원주민)
- 5) 질문 4)의 답을 염두에 두고 다시 듣는다.
- 6) 4)의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해 질문 2(세부적인 내용 파악)을 한다.
- 아마존 원주민들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답: 풍요로운 자연과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간다.)
- 아마존 원주민들은 왜 살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답: 자꾸만 사람들이 아마존에 들어와서 원시림을 벌목하고 여기 저기 개발을 해대서)
- 7) 새 어휘를 설명한다.
- 8) 한 문장씩 듣고 따라하게 한다.
- 9) 학습자가 본문을 읽는다. (혼자 또는 짝지어)
- 10) 상황에 맞게 감정을 실어 읽는다.

*상황(학습자의 수와 학습 정도, 교실 상황 등)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내용 이해 질문

(1) 아마존 밀림 속에는 자연과 어울려 사는 원주민들이 있다. (O, X)

답 : (O) 아마존 밀림 속에 자연에 순응해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다.

(2) 아마존 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O, X)

답 : (X) 아마존 원시림을 벌목하고 여기 저기 개발을 해서 원주민들이 살 곳을 잃어가고 있다.



어휘

환상적이다	to be fantastic	원시적이다	to be primitive, to be wild
밀림	jungle	탄성	exclamation
절로	automatically	원주민	native person
섭리	God's will, nature's way	순응하다	to adapt to
보장하다	to guarantee	벌목하다	to log(vt)
정작	actually	보금자리	home

환상적이다 : 생각 따위가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고 헛되다.
아주 멋있다는 뜻으로 자주 쓰임.

- 저는 환상적인 내용의 영화를 무척 좋아해요.
- 어제 콘서트에서 그 밴드의 공연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 이 섬은 환상적인 자연환경 덕분에 늘 관광객이 끊이지 않아요.

절로 : '저절로'의 줄임말. 다른 힘을 빌리지 않고 제 스스로.

- 아무 도움 없이 일이 절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 절로 감탄이 나와요.
- 우리 선생님의 말을 듣다 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져요.

(확장) 저절로:

-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 이런 문제는 고민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결이 돼.

순응하다: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익숙해지거나 체계, 명령 따위에 적응하여 따르다.

- 아마존 밀림에는 자연에 순응해 살아가는 부족들이 있어요.
- 힘들지만 주어진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조상들은 자연을 정복하기보다 거기에 순응해서 살려고 노력했어요.

(확장) 적응하다: 일정한 조건이나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되다.

- 그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한다.
- 언어가 통하지 않아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정작: 요긴하거나 진짜인 것. 또는 그런 점이나 부분. 정말.

- 파티 준비는 다 끝났는데 정작 주인공이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정작 그 뜻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 한참 동안 기다려서 겨우 만났는데 정작 할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보금자리: 지내기에 매우 포근하고 아늑한 곳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결혼 후에 어디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세요?
- 우리 집 마당에 고양이 한 마리가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 그는 보금자리를 버리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힘든 생활을 택했다.



문법학습

-**(이)나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또는 괜찮은 정도가 됨을 뜻하거나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나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쉬운 대로 만족해야 할 때 사용한다.

‘보금자리나마 지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보금자리만이라도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낸다.

- ① 부족한 음식이나만 대접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 ② 이렇게 전화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반가웠어요.
- ③ 짧은 시간이나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 ④ 지갑을 안 가지고 왔는데 교통카드나마 주머니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수업에서 명사 제시 순서

음식>음식이나

전화>전화로

시간>시간이나

교통카드>교통카드나

문장 만들기

‘**-(이)나마**’를 사용하여 문장 완성하기

- 빵이나 -
- 작은 집이나 -
- 그나마 날씨가 괜찮아서 -
- 선생님 덕분에 늦게나마 -
- 이렇게나마 볼 수 있어서 -
- 조금이나 도움을 줄 수 있어서 -

대화 연습하기

- 유리: 와~ 이게 얼마만이지?
지나: 맞아. 시험 끝나고 영화 한 편이나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 지호: 민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이번 발표 못했을 거야.
민: 고맙긴 뭘. 조금이나 도움이 됐다니 나도 기뻐.
- 아빠: 산에 오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춥지?
지나: 네, 얇은 옷이나 좀더 챙겨서 오길 잘했어요.
- 어머니: 어제 장을 안 봤더니 집에 빵밖에 먹을 게 없네요.
아버지: 괜찮아요. 빵이나 있으니 먹으면 되지요.



심화학습

1. 명사나 부사 뒤에 붙는 보조사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나 관찮은 정도가 됨을 뜻한다. 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 부족하지만 이렇게나마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 몇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은 끝에 작은 집이나마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2. 대체로 구어에서 사용되며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쉬운 대로 만족해야 할 때 사용한다.

- 인스턴트 음식이나마 먹고 출근했더니 허기가 지지는 않네요.
- 네 덕분에 늦게나마 일을 끝낼 수 있었어.

‘작이나마’와 같이 형용사의 어간 뒤에, 어떤 상황이 마음에 차지 않으나 아쉬운 대로 접어주는 조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으)나마’를 붙여 조사 ‘-(이)나마’와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십시오.

절로	보금자리	정작	순응하기	환상적인
----	------	----	------	------

- 1) 요리 재료는 다 준비가 됐는데 정작 요리 방법을 모른다고요?
- 2) 이구아수 폭포의 웅장한 경관을 보고 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 3) 자연에 순응하기 보다 그것을 정복하려는 태도 때문에 환경파괴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해설 : 1) 요리 재료는 다 준비가 됐는데 정작 요리 방법을 모른다고요?
 2) 이구아수 폭포의 웅장한 경관을 보고 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3) 자연에 순응하기보다 그것을 정복하려는 태도 때문에 환경파괴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2.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 1) 작은 _____ 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① 선물이나
 - ② **선물이나마**
 - ③ 선물이라고

해설 : 최고의 선물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선물을 받아 달라는 뜻으로 '작은 선물이나마'를 사용하면 된다.

- 2) 가: 자주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나: 아니에요. 이렇게 가끔 _____ 목소리를 들어서 반가워요.
 - ① **전화로나마**
 - ② 전화로밖에
 - ③ 전화까지도

해설 : 자주 연락을 못 하지만 전화로라도 연락을 할 수 있어서 좋다는 내용이므로 '전화로라도'라고 말해야 한다.

- 3) 집에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시원한 _____ 있어서 다행이네요.
 - ① 과일에다가
 - ② 과일이지만
 - ③ **과일이나마**

해설 : 다른 먹을 게 있으면 더 좋겠지만 과일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라는 내용이므로 '과일이나마'를 사용해서 말해야 한다.

1. 어휘 연습

- 부사 '절로, 정작'은 문장 만들기를 하여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한다.
- 3) '순응하다'가 조사 '보다'와 결합할 때 명사형으로 바뀌는 것에 주의한다.

2. 문법 연습

- 문법 정보를 다시 확인한다.
- [- (이)나마]
- 최선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만족해야 하는 상황에 사용
- 필요한 다른 조사가 있으면 그 조사를 먼저 쓰고 보조사 '-(이)나마'를 뒤에 붙인다.
- 전화로 + 나마 -> 전화로나마
- 학습자가 답항을 보기 전에 스스로 문장을 연결해 보도록 지도한다.

3. 다음에 이어지는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 (거실에서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를 나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아내: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강원도에 놀러 가는 거 어때요?

남편: _____

- ① 강원도는 경치가 환상적이지만 찾는 사람이 많지요.
- ② 주말에나마 집에서 늦잠도 자고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 ③ 지난 주말에 저도 거기 갈 뻔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해설 : 아내가 주말에 강원도에 놀러 가자는 제안을 했는데, 가고 싶은지 여부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②번이다. 다른 때는 힘들지만 주말에는 집에서 그냥 쉬고 싶다는 대답을 하고 있다.

2) (사무실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자: 이번 프로젝트 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자: _____

- 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니 저도 기뻐요.
- ② 이렇게나마 연락할 수 있어서 반가워요.
- ③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 드릴 게 없겠는데요.

해설 :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젝트를 도와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기쁘다는 대답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

3) (선풍기 앞에 친구 두 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한다.)

친구 1: 이 뜨거운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 나다니...

친구 2: _____

- ① 아이구, 에어컨 설치는 어떻게 해야 하지?
- ② 게다가 요즘 에어컨 설치하는 사람이 많대.
- ③ 그래도 선풍기나마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해설 : 에어컨이 고장 났지만 선풍기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3. 대화 연습

•자연스러운 담화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연습이다.

•정답 이외의 질문을 학습자가 스스로 만들어 보도록 한다.

예)

A. 여보, 우리 이번 주말에 강원도에 놀러 가는 거 어때요?

B. 좋아요. 주말에나마 시간을 내서 여행을 많이 하는 게 좋죠.

과제

세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과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 문화도 다양한데요, 여러분은 어릴 적에 어떤 놀이를 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이 해 보았거나 알고 있는 세계의 다양한 놀이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 각자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세계의 다양한 놀이에 대해 써야 한다.
- '-(이)나마'를 사용해야 한다.
- 종결어미는 문어체('-다, ㄴ/는다')로 써야 한다.
- 400~600자 정도로 써야 한다.

예시답변

내가 어릴 때 주로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이 특별한 날에는 피나타라는 놀이를 하고 놀았다. 이 놀이는 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많이 하는데 놀이 방법은 아이들이 눈을 가리고 긴 막대를 휘둘러 상자를 부수는 놀이이다. 바로 여기에 사용되는 상자 이름이 '피나타'라서 이 놀이의 이름이 피나타라고 한다. 이 놀이는 많지 않은 친구들이나마 재미있게 놀 수 있는데, 최소 2명 이상의 참가자가 필요하다. 피나타를 때릴 수 있는 기회는 한 사람당 세 번으로 그 안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아이에게 순서가 돌아가지만 피나타를 깨서 나오는 사탕, 초콜릿, 장난감 등은 모두 공정하게 나누는 평화로운 놀이이다.

도입 질문

- 어렸을 때 했던 놀이를 생각해 본다.
- 무슨 놀이를 하고 놀았는가?
- 어떻게 하는 놀이인가?
- 다른 나라의 비슷한 놀이를 본 적이 있는가?

작문 지도

- 지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직접 경험한 일, 문형, 문체, 길이)
- 글의 구성이 짜임새 있어야 한다. (처음-중간-끝)
- 단락이 나누어져 있어야 한다.
- 학습 수준에 맞는 문형과 어휘를 사용해야 한다.
-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함께 풀어봅시다

1. 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1) 남자: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 _____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뻐요.

2) 아빠: 산에 오니까 생각보다 춥지?

지나: 네, 아빠 얇은 _____ 좀더 챙겨 오길 잘했어요.

2. 다음 <보기>와 같이 ‘-(이)나마’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보기>

가 : 집에 음식이 빵밖에 없습니다.

나 : 집에 빵이나마 먹을 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1) 가 : 연락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 : _____ 연락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가 : 요즘 너무 바빠서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목소리를 듣네요.

나 : 이렇게 _____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괜찮아요.

3) 가 : 어머니, 그동안 조금씩 저축해서 작은 집이지만 내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 그래, _____ 네 집을 사서 이사하게 되었으니 정말 축하한다.

4) 가 :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일 주일에 두 번밖에 운동을 못합니다.

나 : 그래도 _____ 운동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함께 풀어봅시다 (답안지)

1. 다음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1) 남자: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뻐요.

2) 아빠: 산에 오니까 생각보다 춥지?

지나: 네, 아빠 얇은 옷이나마 좀더 챙겨 오길 잘했어요.

2. 다음 <보기>와 같이 ‘-(이)나마’를 사용하여 대화를 완성하십시오.

<보기>

가 : 집에 음식이 뺑뺑에 없습니다.

나 : 집에 뺑이나마 먹을 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1) 가 : 연락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 : 늦게나마 연락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가 : 요즘 너무 바빠서 만나지도 못하고 전화로만 목소리를 듣네요.

나 : 이렇게 전화로나마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괜찮아요.

3) 가 : 어머니, 그동안 조금씩 저축해서 작은 집이지만 내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 그래, 작은 집이나마 네 집을 사서 이사하게 되었으니 정말 축하한다.

4) 가 :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일 주일에 두 번밖에 운동을 못합니다.

나 : 그래도 일 주일에 두 번이나마 운동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